

이혼적용 교육 장기 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문 현 숙*(신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가족학과 강사)

김 득 성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아동·주거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혼자들이 이혼에 대한 적응과 이혼 후의 새로운 생활에 대처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전부터 이혼 후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에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1990년대부터 이혼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법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혼 후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연구비용, 시간부족,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못한 점과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프로그램의 모형개발을 위해 미국의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미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혼적용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국내외 이혼 적응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이혼자들의 생업이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 2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총 6회 세션으로 교육한다. 교육대상은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이혼자로서 이혼한 지 1-2년 이내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되, 참가자의 연령이나 이혼사유 등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의 이혼사유를 가지지 않은 30, 40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양적 평가는 자존감, 우울, 이혼대처 능력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및 추후검사를 실시하고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각각 비교 분석한다. 질적 분석은 프로그램 종료시와 추후검사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서술적으로 응답한 내용을 평가한다.

1990년 이후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혼자 가족의 적응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활용되어 사회단체나 민간단체들의 교육에 응용될 수 있다면 이혼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혼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혼자들을 위한 사회 정책적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